

# “시 얼마나 됐다고...또 계란 대란 오나”

## 살충제 계란 공포 확산

‘살충제 계란’ 파장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들은 계란 출하금지 조치가 타격을 맞았고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제과점들은 매출 급락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을 성토하고 있다.

15일부터 정부의 조치에 따라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가 일시 중지되면서 ‘계란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간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를 겪은 산란계 농장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탄식과 함께 또다시 지역 업계 불똥이 튀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파문으로 계란 값 폭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선 또 한 번의 ‘계란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까 불안해 하고 있다.

지역 산란계 농장주들은 “이번 파문으

## 산란계 농장 “터질게 터졌다”...지역업계 불똥 튀까 예의주시

### 출하 막힌 농가 피해 우려...소비자들 허술한 먹거리 안전 성토

로 계란소비량이 급감할 것”이라며 정부의 허술한 대응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영광지역 산란계 농장 A대표는 “우리 농장은 친환경으로 닭들을 키우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는 문제없이 통과할 것”이라면서 “다만 전체 계란 생산 농장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안 좋아져 계란 판매량이 떨어지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화순 산란계 농장 B대표는 “그간 관계 기관에선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나 항생·항균제 사용 유무 검사만 했지, 그동안 살충제 성분은 검사하지 않았다”면서 “AI 경우 미리 농가에 통보해 대비할 시간을 주는데, 이번엔 정부가 갑작스럽게 출하금지를 발표했다. 하루에 계란

5000개를 생산 중인데, 3일 후부터 생산된 계란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이날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농장에서 납품받은 계란은 없지만 고객 안심차원에서 당분간 모든 점포에서 계란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백화점과 농협하나로마트도 이날부터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계란 판매 중단 대열에 동참했다. 편의점 체인 씨유(CU)도 전국 1만여 개 전 점포에서 생산과 가공된 및 국내산 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간편식 전 제품에 대해 신규 발주와 판매 중단

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먹거리 걱정을 걱정하고 있다.

주부 김모(여·32·광주시 남구 백운동) 씨는 “집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갔다가 살충제 계란 소식을 듣고 계란을 사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계란이 싸서 밥상 단골메뉴로 올렸는데, 또다시 계란폭락 현상이 빚어진다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계란을 주재료로 쓰는 제빵업계는 다소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재료로 쓸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한 제과점 직원은 “재고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당분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살충제 파문이 장기화하면 원료 확보는 물론 제품 판매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공공도서관에 왜 전두환 회고록?

## 출판·배포 금지명령에도 서점 등 여전히 시중 유통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 금지명령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광주 공공도서관에서도 책이 수거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전국 서점을 비롯한 도서관,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서 ‘전두환 회고록’을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전화로 유통 사실을 알리거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올리고 있다.

제보 지역도 다양하다. 광주를 비롯해 경기도, 부산, 제주도 등 전국에서 20여 건 이상이 접수됐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등도서관이 전두환 회고록을 대출 중이라고 알린 A씨는 “다른 곳도 아닌 광주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전두환 회고록이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5일 현재 무등도서관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1~3권 모두 대출 가능하며, 출판·배포 금지명령이 내려진 1권은 대출 중이다.

‘교보문고’, ‘에스24’ 등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도 직접 판매가 아닌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유통되고 있다. 거래액은 기존(2만3000원) 보다 싼 1만8000원~2만원대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법원에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신청을 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판사(자작나무숲)를 소유하고 있는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일반 서점이나 도서관 등은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할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5·18재단은 “‘배포 금지’의 의미에는 ‘출판사에 의한 회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출판사에서 자진 회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재단은 시민 제보가 들어온 곳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 회고록 1권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의 가져본 결정이 난 뒤에도 회고록 1권이 유통되고 있으면 사진 등 입증 자료를 수집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어기면 5·18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 가져본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불법비자금 조성 관련 추징금 2205억원을 환수하고 있는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로 받는 인세 수입에 대해 지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현재 출판사에서는 판매량과 인세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납부한 추징금은 전체의 절반인 1151억원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5일 계란 판매 중단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마트 광주점(왼쪽)과 긴급 수거한 계란에 대해 잔류농약 성분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검사와 직원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5일 계란 판매 중단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마트 광주점(왼쪽)과 긴급 수거한 계란에 대해 잔류농약 성분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검사와 직원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벼룩·진드기 없애는데 사용...다량 섭취 땀 장기 손상 가능성

##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은

국산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은 주머니나 가죽,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 등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물질이다.

백색 분말 형태로 흡입과 섭취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두통이나 감각 이상, 심하면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 농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의 벼룩·진드기

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어서 식품 안전 규정 등을 담은 국내 식품공전에는 별도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피프로닐은 국내에서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식품규격에 따라 정한 피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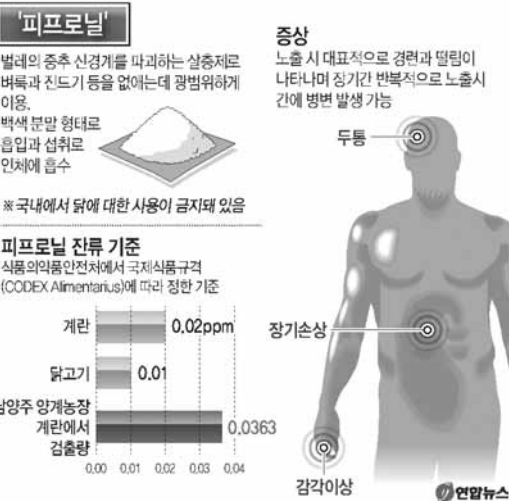
닐 잔류 기준은 계란 0.02ppm(kg당 0.02mg), 닭고기 0.01ppm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연합뉴스

## 국산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어떤 살충제?



## 극락교 인근서 고교생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

광주 극락교 인근 영산강에서 고교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오후 3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극락교 인근에서 A(16·전남 모고교 1년)군이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발견했다.

A군은 전날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행방을 찾던 중이었다.

가족은 지난 13일 밤 집에 들어왔던 A군이 14일 오전부터 온종일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군은 13일 밤 9시30분께 집에서 나와 뒤 집 주변 편의점에서 친구 B군을 만나 택시를 타고 극락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말을 B군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레미는 파병군 출신 20대 위험한 장난...행인 조준 비비탄 쏘

○...20대 남성이 망원렌즈가 장착된 모형 총기로 길을 가던 행인을 조준해 비비탄을 쏘다가 경찰서행.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4)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입방 창문에서 주차장으로 가던 최모(38)씨에게 비비탄을 발사해 타박상을 입힌 혐의.

○...레미는 파병군인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제대 후 취미로 모형 총기를 수집하던 중 사람을 맞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이 아파트 3층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끝에 이씨를 잡거.

김용희기자 kimyh@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정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면사무소인근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토지 218평 감정가 34,000,000 최저가 34,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먼리조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치지 유물관리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강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원 3500백 시설비 9천 조정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건 원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